2017년 4월 8일 국가직 9급 국어 ㉯책형 해설

TG교육그룹 관리형 프리미엄 독서실 잇올 국어팀 설승환

오늘 시험보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을 잘 보신 분들께는 큰 축하를,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이 잘 안 나오신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음 해설지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남은 시험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푹 쉬십시오.

[총평] 쉽다고도 하기 애매하고, 어렵다고도 하기 애매한, 적당한 변별력을 지닌 시험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고, 문학 문제가 두드러지게 많음. 한자도 3문제나.

출제영역	문항 수	문항	난이도	문항 내용
국어문법	4	7번	중	형태론_고유어 접두사와 한자어 접두사
		8번	중	형태론_용언의 규칙/불규칙 활용
		16번	중	고전문법_훈민정음의 28자모 체계
		19번	하	음운론_자음과 모음의 체계
어문규정	2	15번	중	한글 맞춤법_맞춤법에 맞게 표기한 단어 찾기
		17번	상	한글 맞춤법_띄어쓰기
어휘	2	5번	하	문맥적 의미
		6번	상	사전적 의미
한자	3	3번	상	사자성어
		14번	상	한자 표기
		18번	상	한자 독음
문학	7	1번	중	고전시가_'구지가'
		2번	하	현대시_정희성, '저문 강에 삽을 씻고'
		4번	하	현대소설_황석영, '삼포 가는 길'
		9번	중	현대소설_오정희, '중국인 거리'
		11번	하	현대시_김기림, '바다와 나비'
		12번	하	현대소설_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13번	중	고전소설_'유충렬전'
비문학	2	10번	하	견해 파악하기
		20번	상	순서 추론하기

<각 문항별 해설>

문 1. 다음 시가의 전개 방식으로 옳은 것은?

> 龜何龜何
> 首其現也
> 若不現也
> 燔灼而喫也
>
> —「구지가」—

① 요구 – 위협 – 환기 – 조건
② 환기 – 요구 – 조건 – 위협
③ 위협 – 조건 – 환기 – 요구
④ 조건 – 요구 – 위협 – 환기

[정답] ② / 난이도 중

[정답 해설]

龜何龜何	거북아 거북아	대상을 부르고 있음(환기).
首其現也	머리를 내어라.	머리를 내어 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음.
若不現也	내놓지 않으면	'머리를 내어 놓지 않으면'이라고 조건을 걸고 있음.
燔灼而喫也	구워서 먹으리.	구워서 먹겠다고 위협하고 있음.

[한 줄 평] 고등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필수적인 문학 작품들은 미리 익혀놓아야 한다. 한다(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에서, 아는 문학 작품이 나오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문 2. 화자의 처지나 행위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 우리가 저와 같아서
>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 일이 끝나 저물어
>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보며
>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 나는 돌아갈 뿐이다.
>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 샛강 바닥 썩은 물에
> 달이 뜨는구나
> 우리가 저와 같아서
>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
> — 정희성, 「저문 강에 삽을 씻고」 —

① 화자는 일을 마치고, 해 지는 강변에 나와 삽을 씻는다.
② 화자는 강물에 슬픔을 퍼다 버리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
③ 화자는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④ 화자는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해 지는 강가의 풍경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한다.

[정답] ④ / 난이도 하

[정답 해설] 4행에서 '슬픔을 퍼다 버린다.'라고 하고 있고, 해 지는 강가의 풍경을 보면서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있다. 그리고 '샛강 바닥 썩은 물에 / 달이 뜨는구나 / 우리가 저와 같아서'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지 않았다. 시문학은 기본적으로 서정 문학이므로(정서를 제시하는 문학),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한 시는 거의 없다.

[오답 풀이]
① 3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4행과 15~16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에서 '생애'는 '삶'이고, '삶'을 '삽자루에 맡'겼다고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줄 평] 시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

문 3.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사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전국 시대 말, 진나라의 공격을 받은 조나라 혜문왕은 동생인 평원군을 초나라에 보내어 구원군을 청하기로 했다. 이십 명의 수행원이 필요한 평원군은 그의 삼천여 식객 중에서 십구 명은 쉽게 뽑았으나, 나머지 한 명을 뽑지 못한 채 고심했다. 이때에 모수라는 식객이 나섰다. 평원군은 어이없어하며 자신의 집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물었다. 모수가 삼 년이 되었다고 대답하자 평원군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법인데, 모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모수는 "나리께서 이제까지 저를 단 한 번도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신다면 끝뿐이 아니라 자루까지 드러날 것입니다." 하고 재치 있는 답변을 했다. 만족한 평원군은 모수를 수행원으로 뽑았고, 초나라에 도착한 평원군은 모수가 활약한 덕분에 국빈으로 환대받고, 구원군도 얻을 수 있었다.

① 吳越同舟　② 囊中之錐
③ 馬耳東風　④ 近墨者黑

[정답] ② / 난이도 상

[정답 해설] '능력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스스로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는 뜻을 지닌 **囊中之錐**(낭중지추)가 가장 적절하다. '낭중지추'를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하면 '주머니 속의 송곳'이므로, 고사를 알고 있었다면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었던 문제였다.

[오답 풀이]

① 吳越同舟(오월동주) : 서로 사이가 대단히 나쁜 자가 같은 장소에 있다는 뜻.
③ 馬耳東風(마이동풍) : 남의 말을 유심히 듣지 않고 흘려보낸다는 뜻.
④ 近墨者黑(근묵자흑) : 나쁜 사람을 가까이하면 그 버릇에 물들기 쉽다는 뜻.

[한 줄 평] 평소에 한자성어 학습할 때 독음뿐만 아니라 한자도 유심히 봐 놓자.

문 4.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백화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
> "무겁죠?"
>
>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리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했다.
>
> "어깨가 참 넓으네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
>
> "댁이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구."
>
>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중에서 —

① '눈 덮인 길의 고랑'은 백화가 신음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② 등에 업힌 백화는 영달이가 '옥자'를 떠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③ 영달이는 '대전에서의 옥자'를,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④ 백화는 처음에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기를 싫어했으나, 영달이의 등에 업힌 이후 싫어하는 내색이 없어 보인다.

[정답] ③ / 난이도 하

[정답 해설] '어린애'라는 말은 여덟째 줄에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것이지, '대전에서의 옥자'를 어린애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영달이는 '대전에서의 옥자'를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셋째 줄~넷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여덟째 줄~열한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백화가 처음에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넷째 줄~다섯째 줄에서, 백화가 영달이의 등에 업힌 이후 싫어하는 내색이 없어 보인다는 것은 열두째 줄~열셋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줄 평] 내용일치 선에서 풀 수 있었던 쉬운 문제

문 5. 밑줄 친 말의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은?

고장 난 시계를 고치다.

① 부엌을 입식으로 고치다.
② 상호를 순 우리말로 고치다.
③ 정비소에서 자동차를 고치다.
④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낡은 법을 고치다.

[정답] ③ / 난이도 하

[정답 해설] '고치다' 앞의 목적어가 '시계를'이므로, 이와 유사한 문장 구조를 지닌 선택지는 ③번이며, '자동차를 고치다'와 '시계를 고치다'가 문맥적으로 의미가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고치다의 뜻은 '고장이 나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손질하여 제대로 되게 하다.'이다.

[오답 풀이]
① '본디의 것을 손질하여 다른 것이 되게 하다.'의 뜻이다.
②, ④ '이름, 제도 따위를 바꾸다.'의 뜻이다.

[한 줄 평]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 중에서도 쉬운 축에 속하는 문제

문 6. 밑줄 친 말의 사전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아이들이야 학교 가는 시간을 빼고는 내내 밖에서만 노는데, 놀아도 여간 <u>시망스럽게</u> 놀지 않았다.
> — 최일남, 『노새 두 마리』 중에서 —

①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
② 생기 있고 힘차며 시원스럽다.
③ 어수선하여 질서나 통일성이 없다.
④ 보기에 태도나 행동이 가벼운 데가 있다.

[정답] ① / 난이도 상

[정답 해설] '시망스럽다'의 뜻은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이다.

[오답 풀이]
② '활발하다'의 뜻이다.
③ '산만하다'의 뜻이다.
④ '잔망스럽다'의 뜻이다.

[한 줄 평] 이런 문제들은 정말 어쩔 수 없다. 이번 시험 최고난도 문제라고 할 수 있고, 평소에 많은 어휘를 접할 수밖에...

문 7. 밑줄 친 접두사가 한자에서 온 말이 아닌 것은?

① 강염기
② 강타자
③ 강기침
④ 강행군

[정답] ③ / 난이도 중

[정답 해설] '강기침'의 '강-'은 '마른' 또는 '물기가 없는'의 뜻을 지닌 고유어 접두사이다.

[오답 풀이]

① 강(强)염기, ② 강(强)타자, ④ 강(强)행군

→ 이때의 '강(强)-'은 '매우 센' 또는 '호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①, ②, ④번 선택지에 쓰인 단어들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모두 예문으로 수록되어 있다.

[한 줄 평] 문법 문제를 가장한 고유어/한자어 판별 문제.
접두사 '강-'은 자주 나오는 접두사 중 하나이므로 잘 기억해 놓자.

문 8. 밑줄 친 말의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무를 강판에 가니 즙이 나온다. (기본형 : 갈다)
② 오래되어 불은 국수는 맛이 없다. (기본형 : 불다)
③ 아이들에게 위험한 데서 놀지 말라고 일렀다. (기본형 : 이르다)
④ 퇴근하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렀다가 친구를 만났다. (기본형 : 들르다)

[정답] ② / 난이도 중

[정답 해설] '불은'의 기본형은 '분다'이다. '분다'의 어간 '분-'에 모음 어미 '-은'이 결합할 때 어간 '분-'의 'ㄷ'이 'ㄹ'로 바뀌어 '불은'이 되는 것인데, 이때 '분다'는 어간의 형태가 바뀌는 불규칙 용언이다.

[오답 풀이]

① '가니'의 기본형은 '갈다'이다. '갈다'의 어간 '갈-'에 자음 어미 '-니'가 결합할 때 어간 '갈-'의 'ㄹ'이 탈락하는 것인데, 이때 '갈다'는 어간의 'ㄹ'이 탈락하는 규칙 용언이다.

③ '일렀다'의 기본형은 '이르다'이다. '무엇이라고 말하다'의 뜻을 지는 '이르다'의 어간 '이르-'에 모음 어미 '-었-'이 결합할 때 어간 '이르-'에서 'ㄹ'이 덧생기고 'ㅡ'가 탈락하여 '일렀다'가 되는 것인데, 이때 '이르다'는 어간의 형태가 바뀌는 불규칙 용언이다.

④ '들렀다'의 기본형은 '들르다'이다. '들르다'의 어간 '들르-'에 모음 어미 '-었-'이 결합할 때 어간 '들르-'에서 'ㅡ'가 탈락하여 '들렀다'가 되는 것인데, 이때 '들르다'는 어간의 'ㅡ'가 탈락하는 규칙 용언이다.

[한 줄 평] 규칙 용언/불규칙 용언은 형태론의 최고난도 주제이자 자주 출제되는 주제이므로, 꼼꼼하게 학습해 놓자.

문 9. 다음 글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 일주일에 한 번쯤 돼지고기를 반 근, 혹은 반의 반 근 사러 가는 푸줏간이었다. 어머니는 돈을 들려 보내며 매양 같은 주의를 잊지 않았다.
>
> 적게 주거든, 애라고 조금 주느냐고 말해라, 그리고 또 비계는 말고 살로 주세요, 해라.
>
> 푸줏간에서는 한쪽 볼에 힘껏 쥐어질린 듯 여문 밤톨만한 혹이 달리고 그 혹부리에, 상기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끄들리고 있는 듯 길게 뻗힌 수염을 기른 홀아비 중국인이 고기를 팔았다.
>
> 애라고 조금 주세요?
>
> 키가 작아 발돋움질로 간신히 진열대에 턱을 올려놓고 돈을 밀어 넣는 것과 동시에 나는 총알처럼 내뱉었다.
>
> 고기를 자르기 위해 벽에 매단 가죽 끈에 칼을 문질러 날을 세우던 중국인은 미처 무슨 말인지 몰라 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비계는 말고 살로 달래라 하던 어머니가 일러준 말을 하기 전 중국인이 고기를 자를까 봐 허겁지겁 내쏘았다.
>
> 고기로 달래요.
>
> 중국인은 꾸룩꾸룩 웃으며 그때야 비로소 고기를 덥석 베어 내었다.
>
> 왜 고기만 주니, 털도 주고 가죽도 주지.
>
> — 오정희, 「중국인 거리」 중에서 —

① 어머니의 주의에 대한 '나'의 수용
②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어머니의 태도
③ 시간적 배경의 특성과 공간적 배경의 역할
④ '나'의 말에 대해 푸줏간의 '중국인'이 보여 주는 정서

[정답] ③ / 난이도 중

[정답 해설] 공간적 배경은 작품의 제목인 '중국인 거리', 작품 속의 '푸줏간'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시간적 배경은 지문 속에서 등장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어머니의 주의는 넷째 줄~다섯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나'의 수용은 열다섯째 줄~열일곱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둘째 줄~셋째 줄에서 '어머니는~매양 같은 주의를 잊지 않았다.'를 통해, 그리고 넷째 줄~다섯째 줄에서 어머니가 주의를 주는 대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열아홉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줄 평] 자칫 당황할 수 있었지만, 정답은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는 문제

문 10.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낸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짐작한다. 그러므로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말과 생각이 얼마만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두 가지 있다. 그 하나는 말과 생각이 서로 꼭 달라붙은 쌍둥이인데 한 놈은 생각이 되어 속에 감추어져 있고 다른 한 놈은 말이 되어 사람 귀에 들리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생각이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이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는 생각이다.

이 두 가지 생각 가운데서 앞의 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틀렸다는 것을 즉시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거의 대부분 말로 나타낼 수 있지만, 누구든지 가슴 속에 응어리진 어떤 생각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애태운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말과 생각이 서로 안팎을 이루는 쌍둥이가 아님은 쉽게 판명된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넓고 큰 것이며 말이란 결국 생각의 일부분을 주워 담는 작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가능한 한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 생각의 위대함이나 오묘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형님이요, 말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은 동생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러니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① 말은 생각보다 범위가 좁다.
② 말은 생각을 나타내는 매개체이다.
③ 말과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④ 말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정답] ④ / 난이도 하

[정답 해설] 마지막 줄의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를 볼 때, 글쓴이가 '말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지녔다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4문단 첫째 줄~둘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③ 4문단 마지막 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줄 평] 각 문단별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읽어나갔다면, 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은 없었을 문제

문 11.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
>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
>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① '청(靑)무우밭'은 '바다'와 대립되는 이미지로 쓰였다.
② '흰나비'는 '바다'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③ 화자는 '공주처럼' 나약한 나비의 의지 부족과 방관적 태도를 비판한다.
④ '삼월(三月)달 바다'와 '새파란 초생달'은 모두 차가운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정답] ③ / 난이도 하

[정답 해설]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는 '흰나비'가 '청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고 나와 있으므로, 나비가 의지 부족 또는 방관적 태도를 지녔다고 말할 수는 없고, 화자가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흰나비'는 '바다'를 '청무우밭'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바다'는 흰나비의 날개를 물결에 절게 하고 지치게 하는 공간이므로 '청무우밭'과 '바다'는 대립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② '흰나비'가 '바다'를 '청무우밭'이라고 생각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바다'와 '새파란'을 볼 때, '삼월달 바다'와 '새파란 초생달'은 모두 차가운 이미지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줄 평] ①번 선택지만 잘 판단하고 넘겼다면, 정답을 고르기에 어려움이 없었던 문제

문 12. <보기>를 참고할 때, ㉠ ~ ㉣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어떤 특정한 시기의 풍속이나 세태의 한 단면을 그리는 소설 양식을 세태 소설이라 한다. 세태 소설은 당대 사회의 모순이나 부조리 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여 그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그 대표적인 소설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 있다.

㉠ 개찰구 앞에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낡은 파나마에 모시 두루마기 노랑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광 브로커에 틀림없었다. 구보는 새삼스러이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

㉢ 황금광 시대(黃金狂時代).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 황금을 찾아,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鑛務所). 인지대 백 원. 열람비 오 원. 수수료 십 원. 지도대 십팔 전…….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全土)의 칠 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또 몰락해 갔다.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해 그의 벗의 광산에 가 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중에서 —

① ㉠ : 세태의 단면이 드러나는 공간적 배경이다.
② ㉡ : 적극성을 지닌 존재들로 서술자의 예찬 대상이다.
③ ㉢ : '무거운 한숨'을 유발하는 부조리한 현실로 서술자의 비판 대상이다.
④ ㉣ : 서술자가 '금광열'이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설정한 대상이나 공간이다.

[정답] ② / 난이도 하

[정답 해설] 서술자는 넷째 줄~일곱째 줄에서 금광 브로커들을 보고 '황금광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에 대해 여덟째 줄에서 '무거운 한숨'을 쉬고 있고, 뒤의 내용들을 읽어볼 때 당시 세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첫째 줄~여섯째 줄에서 서술자가 '개찰구 앞에 서 있는 두 명의 사내 = 무직자 = 거의 다 금광 브로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대해 '황금광 시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개찰구'는 1930년대 세태의 단면을 드러내는 공간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정답 해설에서도 설명했지만, 여덟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마지막 부분에 '고도의 금광열은~볼 수 있었다.'라고 나와 있다.

[한 줄 평] 선택지 간 비교로도 충분히 답을 골라낼 수 있었던 쉬운 문제

문 13. ㉠ ~ ㉣에 대한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빌기를 다 함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황천인들 무심할까. 단상의 오색구름이 사면에 옹위하고 산중에 ㉠ 백발 신령이 일제히 하강하여 정결케 지은 제물 모두 다 흠향한다. 길조(吉兆)가 여차(如此)하니 귀자(貴子)가 없을쏘냐. 빌기를 다한 후에 만심 고대하던 차에 일일은 한 꿈을 얻으니, ㉡ 천상으로서 오운(五雲)이 영롱하고, 일원(一員) 선관(仙官)이 청룡(靑龍)을 타고 내려와 말하되,

"나는 청룡을 다스리던 선관이더니 익성(翼星)이 무도(無道)한 고로 상제께 아뢰되 익성을 치죄하야 다른 방으로 귀양을 보냈더니 익성이 이걸로 함심(含心)하야 ㉢ 백옥루 잔치 시에 익성과 대전(對戰)한 후로 상제전에 득죄하여 인간에 내치심에 갈 바를 모르더니 남악산 신령들이 부인 댁으로 지시하기로 왔사오니 부인은 애휼(愛恤)하옵소서."

하고 타고 온 청룡을 오운 간(五雲間)에 방송(放送)하며 왈,

"㉣ 일후 풍진(風塵) 중에 너를 다시 찾으리라."

하고 부인 품에 달려들거늘 놀래 깨달으니 일장춘몽이 황홀하다.

정신을 진정하야 정언주부를 청입(請入)하야 몽사를 설화(說話)한대 정언주부가 즐거운 마음 비할 데 없어 부인을 위로하야 춘정(春情)을 부쳐 두고 생남(生男)하기를 만심 고대하더니 과연 그달부터 태기 있어 십 삭이 찬 연후에 옥동자를 탄생할 제, 방 안에 향취 있고 문 밖에 서기(瑞氣)가 뻗질러 생광(生光)은 만지(滿地)하고 서채(瑞彩)는 충천하였다.

… (중략) …

이때에 조정에 두 신하가 있으니 하나는 도총대장 정한담이요, 또 하나는 병부상서 최일귀라. 본대 천상 익성으로 자미원 대장성과 백옥루 잔치에 대전한 죄로 상제께 득죄하여 인간 세상에 적강(謫降)하여 대명국 황제의 신하가 되었는지라 본시 천상지인(天上之人)으로 지략이 유여하고 술법이 신묘한 중에 금산사 옥관도사를 데려다가 별당에 거처하게 하고 술법을 배웠으니 만부부당지용(萬夫不當之勇)이 있고 백만군중대장지재(百萬軍中大將之才)라 벼슬이 일품이요 포악이 무쌍이라 일상 마음이 천자를 도모코자 하되 다만 정언주부인 유심의 직간을 꺼려하고 또한 퇴재상(退宰相) 강희주의 상소를 꺼려 주저한 지 오래라.

— 「유충렬전」 중에서 —

① ㉠ : 길조(吉兆)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② ㉡ : '부인'이 꾼 꿈의 상황이다.
③ ㉢ : '선관'이 인간 세상에 귀양을 오게 되는 계기이다.
④ ㉣ : '남악산 신령'이 후일 청룡을 타고 천상 세계로 복귀할 것임을 암시한다.

[정답] ④ /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은 청룡을 다스리던 선관이 한 말인데, 청룡을 다스리던 선관이 '너'를 찾아오겠다고 했으므로 ④번 선택지의 주어로 '남악산 신령'이라고 온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남악산 신령'은 열두째~열셋째 줄에서 선관에게 부인 댁으로 가라고 지시한 존재이므로, '남악산 신령'이 천상 세계로 복귀할 것을 암시한다는 말도 틀렸다.

[오답 풀이]

① ㉠ 바로 다음에 '길조가 여차하니'라고 나와 있다.

② ㉡ 바로 앞에 '일일은 한 꿈을 얻으니'라고 나와 있고, ㉢ 바로 다음에 '부인 품에 달려들거늘 놀래 깨달으니 일장춘몽이 황홀하다'라고 나와 있으므로 부인이 꾼 꿈임을 알 수 있다.

③ ㉤ 바로 다음에 '득죄하여 인간에 내치심에'라고 나와 있다.

[한 줄 평] 이번에 출제된 문학 문제들 중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이다. 평소에 고전문학 작품들을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성이 있겠다.

문 14. ㉠ ~ ㉣의 한자가 모두 바르게 표기된 것은?

<보 기>

글의 진술 방식에는 ㉠설명, ㉡묘사, ㉢서사, ㉣논증 등 네 가지 방식이 있다.

	㉠	㉡	㉢	㉣
①	說明	描寫	敍事	論證
②	設明	描寫	敍事	論症
③	說明	猫鯊	徐事	論症
④	說明	猫鯊	徐事	論證

[정답] ① / 난이도 상

[정답 해설] 설명(說明), 묘사(描寫), 서사(敍事), 논증(論證)으로 표기된다.

[오답 풀이]

②번 선택지 ㉠에서 '設明'이라는 단어는 없다.

③, ④번 선택지 ㉡에서 '묘사(猫鯊)'는 '괭이상어'라는 뜻이다. 글의 진술 방식인 '묘사'의 한자가 아니다.

③, ④번 선택지 ㉢에서 '서사(徐事)'는 '태봉의 광평성의 둘째 관직'이라는 뜻이다. 글의 진술 방식인 '서사'의 한자가 아니다.

②, ③번 선택지 ㉣에서 '논증(論症)'은 '병의 증세를 논술함.'의 뜻이다. 글의 진술 방식인 '논증'의 한자가 아니다.

문 15. 밑줄 친 부분이 어문 규정에 맞는 것은?

① 병이 씻은 듯이 낳았다.
② 넉넉치 못한 선물이나 받아 주세요.
③ 그는 자물쇠로 책상 서랍을 잠갔다.
④ 옷가지를 이여서 밧줄처럼 만들었다.

[정답] ③ /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잠그다'의 어간 '잠그-'에 선어말 어미 '-았-'이 결합할 때 어간 '잠그-'에서 'ㅡ'가 탈락하여 '잠갔다'가 된다. '잠궜다'가 아닌 '잠갔다'가 맞는 표현이라는 것은, 국어문법 공부하면서 한 번쯤은 봤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병이 낳았다.'가 아닌 '병이 나았다.'가 맞다.

② <한글 맞춤법> 제40항 [붙임 2]에 의하면,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한글 맞춤법>에 나와 있는 예문 : (본말) 넉넉하지 않다 → (준말) 넉넉지 않다

※ '하-' 앞말의 받침이 안울림소리일 경우 '하-'가 아예 줄어들며,
'하-' 앞말의 받침이 울림소리일 경우 '하-' 뒤에 오는 어미의 자음이 'ㅎ'과 결합하며 줄어든다.
(예) 간편하게 → 간편케, 다정하다 → 다정타, 연구하도록 → 연구토록)

④ '잇다'의 어간 '잇-'에 어미 '-어서'가 결합할 때 어간 '잇-'에서 'ㅅ'이 탈락하여 '이어서'가 된다.

[한 줄 평] 한글 맞춤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항목들 위주로 선택지가 구성되었다. 공무원 국어 공부의 기본은 한글 맞춤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문 16. 훈민정음의 28 자모(字母) 체계에 들지 않는 것은?

① ㆆ
② ㅿ
③ ㅠ
④ ㅸ

[정답] ④ / 난이도 중

[정답 해설] '붕'은 훈민정음의 초성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ㅇ'을 순음 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이 된다.>의 원칙, 즉 이어쓰기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문자이다.

[오답 풀이]

①, ② 아래 표를 통해, ㆆ과 ㅿ는 훈민정음의 초성 17자 체계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분 류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아음(牙音, 어금닛소리)	ㄱ	ㅋ	ㆁ
설음(舌音, 혓소리)	ㄴ	ㄷ, ㅌ	ㄹ
순음(脣音, 입술소리)	ㅁ	ㅂ, ㅍ	
치음(齒音, 잇소리)	ㅅ	ㅈ, ㅊ	ㅿ
후음(喉音, 목구멍소리)	ㅇ	ㆆ, ㅎ	

③ 아래 표를 통해, ㅠ는 훈민정음의 중성 11자 체계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
·, ㅡ, ㅣ	ㅗ, ㅏ, ㅜ, ㅓ (ㅛ, ㅑ, ㅠ, ㅕ)	ㅛ, ㅑ, ㅠ, ㅕ (ㅛ, ㅑ, ㅠ, ㅕ)

[한 줄 평] 고전 문법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물어 본 문제이다. 고전 문법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므로, 제대로 암기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문 17.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① 한밤중에 전화가 왔다.
② 그는 일도 잘할 뿐더러 성격도 좋다.
③ 친구가 도착한 지 두 시간만에 떠났다.
④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 된다.

[정답] ① / 난이도 상

[정답 해설] 원래 '중(中)'이 ~하는 동안, ~가운데의 의미이면 앞말과 띄어 써야 하지만, 그 중에서 한밤중, 은연중, 부재중 등은 예외적으로 붙여 쓴다.

[오답 풀이]

② '잘하다'에서 어간 '잘하-'에 어미 '-ㄹ뿐더러'가 결합한 것이므로 '잘할뿐더러'와 같이 붙여 써야 한다.

③ 이 문장에 쓰인 '만'은 '동안이 얼마간 계속되었음을 나타내는 말', 즉 의존명사이므로, '두 시간 만에'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④ 이 문장에는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의 의미를 지닌 '안되다'가 쓰였으므로, '안된다'와 같이 붙여 써야 한다.

[한 줄 평] 띄어쓰기 내용 중에서도, 상당히 세밀하고도 어려운 부분을 건드린 문제이다. 띄어쓰기 자체가 어문 규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므로,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고 숙달하여 모든 경우의 수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문 18. 독음이 모두 바른 것은?

① 探險(탐험) – 矛盾(모순) – 貨幣(화폐)
② 詐欺(사기) – 惹起(야기) – 灼熱(치열)
③ 荊棘(형자) – 破綻(파탄) – 洞察(통찰)
④ 箴言(잠언) – 惡寒(악한) – 奢侈(사치)

[정답] ① / 난이도 상

[정답 해설] 探險(탐험), 矛盾(모순), 貨幣(화폐)로 읽는다.

[오답 풀이]
② 詐欺(사기), 惹起(야기), 灼熱(작열)로 읽는다.
③ 荊棘(형극), 破綻(파탄), 洞察(통찰)로 읽는다.
④ 箴言(잠언), 惡寒(오한), 奢侈(사치)로 읽는다.

문 19.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① 'ㄴ, ㅁ, ㅇ'은 유음이다.
② 'ㅅ, ㅆ, ㅎ'은 마찰음이다.
③ 'ㅡ, ㅓ, ㅏ'는 후설 모음이다.
④ 'ㅟ, ㅚ, ㅗ, ㅜ'는 원순 모음이다.

[정답] ① / 난이도 하

[정답 해설] 'ㄴ, ㅁ, ㅇ'은 비음이다. 'ㄹ'이 유음이다.

[오답 풀이]

② 아래 자음 표를 통해 'ㅅ, ㅆ, ㅎ'은 마찰음임을 알 수 있다.

소리 내는 방법 \ 소리 내는 자리			양순음 (입술소리)	치조음 (혀끝소리)	경구개음 (센입천장소리)	연구개음 (여린입천장소리)	후음 (목청소리)
안울림 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울림 소리	비 음		ㅁ	ㄴ		ㅇ	
	유 음			ㄹ			

③, ④ 아래 모음 표를 통해 'ㅡ, ㅓ, ㅏ'는 후설 모음, 'ㅟ, ㅚ, ㅗ, ㅜ'는 원순 모음임을 알 수 있다.

혀의 높낮이	혀의 앞뒤 위치	전설 모음		후설 모음	
	입술 모양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 모 음		ㅣ	ㅟ	ㅡ	ㅜ
중 모 음		ㅔ	ㅚ	ㅓ	ㅗ
저 모 음		ㅐ		ㅏ	

[한 줄 평] 자음, 모음 분류표 암기는 기본 중의 기본! 음운 변동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위의 표들은 필수적으로 외우는 것이 좋다.

문 20. 내용의 전개에 따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가)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또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이쪽에서 보면 모두가 저것, 저쪽에서 보면 모두가 이것이다.

(나)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고, 이것 또한 저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이것과 저것은 저 혜시(惠施)가 말하는 방생(方生)의 설이다.

(다) 그래서 성인(聖人)은 이런 상대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그것을 절대적인 자연의 조명(照明)에 비추어 본다. 그리고 커다란 긍정에 의존한다. 거기서는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 또한 이것이다. 또 저것도 하나의 시비(是非)이고 이것도 하나의 시비이다. 과연 저것과 이것이 있다는 말인가. 과연 저것과 이것이 없다는 말인가.

(라) 그러나 그, 즉 혜시(惠施)도 말하듯이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삶이 있다. 역시 된다가 있으면 안 된다가 있고, 안 된다가 있으면 된다가 있다. 옳다에 의거하면 옳지 않다에 기대는 셈이 되고, 옳지 않다에 의거하면 옳다에 의지하는 셈이 된다.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나) – (라) – (다)
③ (가) – (다) – (나) – (라)
④ (가) – (라) – (나) – (다)

[정답] ② / 난이도 상

[정답 해설] 우선 선택지에서 (가)를 맨 처음으로 이미 배치해 놓았고, (가)의 마지막 문장이 '이쪽에서 보면 모두가 저것, 저쪽에서 보면 모두가 이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첫 문장이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고, 이것 또한 저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라고 나와 있으므로 (가) 다음에 (나)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문장이 '이것과 저것은 저 혜시가 말하는 방생의 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라)의 첫 문장이 '그러나 그, 즉 혜시도 말하듯이~'라고 나와 있으므로 (나) 다음에 (라)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한 줄 평] 내용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라 당황했을 가능성이 크다. 각 문단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잘 연결해 보는 것이 순서 추론 문제의 핵심이다.